인권정보자료실
CPb1.78

자료집

인혁당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1998. 11.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인혁당 대책위)
서울 중구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천주교 인권위 내 전화) 02-777-0643

지도위원과 후원회원으로 함께 하여 주십시오.

8인의 무고한 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인혁당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힘을 보태 주실 지도위원과 후원회원으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인혁당 대책위에 함께 하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위원으로 함께 하여 주신 분들(11월 5일 현재까지 접수분)
강신석(목사, 광주 무진교회)/ 김승오(신부, 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지도신부)/ 김승훈(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시흥동성당 주임)/ 김홍진(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산동성당 주임)/ 도강호(4월 혁명연구소 상임의장)/ 두봉(주교, 전 천주교 안동교구 교구장)/ 문한성(변호사, 변리사, 문한성법률사무소)/ 박순경(교수,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공동의장)/ 박정일(주교, 천주교 마산교구 교구장)/ 유현석(변호사, 경실련 대표)/ 윤공희(대주교,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 윤인섭(변호사, 천주교 인권위원회 회원)/ 이기형(시인, 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 이오덕(어린이 문학가)/ 이준희(신부, 천주교 인천교구 계산동)/ 이창수(한국 국제문제연구소 대표)/ 차광호(신부, 천주교 마산교구 청소년국장)/ 최영도(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의열(신부, 동두천성당 주임)/ 현기영(소설가,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위원장)/ 홍근수(목사, 향린교회 담임)

도움 주실 분을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 농 협 : 027-12-092791 (예금주 이돈명)
- 신한은행 : 218-12-056295 (예금주 이돈명)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대표: 이돈명, 문정현)
서울 중구 명동 2가1 가톨릭회관 천주교 인권위내 전화)777-0643 전송)775-6267

인권정보자료실 CPb1.78

인혁당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 차 례 …·

1. 추모시 - 이기형(시인, 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
   겨레와 나라를 사랑한 것밖에

2. 인사말 - 문정현(신부, 대책위 공동대표)
   죽은 자와 산 자들이 함께 춤추는 날이

3. 인혁당 대책위, 앞으로 이렇게 활동합니다.

4. 진실 찾기
   인혁당 재건위 사건 사형수 8인의 진실

5. 상고 이유서 - 여정남(인혁당 사건 희생자)
   요식행위 조차도 생략된 불법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6. 유족의 글 - 송철환(희생자 송상진씨 아들)
   잊을 수 없는 4월 9일
   - 여상화(희생자 여정남씨 질녀)
   영원히 산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 있어래

7. 탄원서 1 - 강순희(희생자 우홍선씨 부인)
   세칭)인혁당 사건 관계자들을 사면, 복권, 보상하십시오(1987. 8)
   탄원서 2 - 신동숙(희생자 도예종씨 부인)/ 이영교(희생자 하재완씨 부인)
   억울한 죽음의 진상은 밝혀져야 합니다.(1998. 8)

추모시

겨레와 나라를 사랑한 것밖에 죄가 없다

- 소위 인혁당사건 대책위 출범에 부쳐 -

이 기 형 (시인, 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

1974년 3월 초
유신 암흑에서도
매화꽃 개나리꽃 진달래는 방긋방긋
방향(芳香) 천지에 뿌렸다.

온 겨레가
새희망을 찾아 부푸는데
무슨놈 날벼락이냐
민청학련사건 배후로 지목
여덟 애국투사를 줄줄이 옭아갔다
조작하여 '인혁당사건'이라고

천하에 둘도 없는 고문 만행
발길질 주먹질
물과 고추가루와
전기와 불과
몽둥이와 대바늘과 철사로
생사람을 잡아
죄를 남산만큼 쌓았다

일심에서 줄줄이 사형
이심에서도 줄줄이 사형
일년쯤 지난 1975년 잔인한 4월 8일
대법원 판결 날
김용원 사형
도예종 사형
서도원 사형
송상진 사형
여정남 사형
우홍선 사형
이수병 사형
하재완 사형
천인 공노할 극형
찰칵 찰칵 수갑을 채운다
여덟 투사는 할 말을 잃었다
서로 멍히 쳐다봤다
한마디씩 분통을 터뜨려
'이따윗 법이 어딨노!'
'생사람을 잡아!'
'망할 놈의 세상!'
'나라와 겨레를 사랑한 것밖에 죄가 없다!'
한 사람 한사람

독방에 등을 떠밀어 넣는다
그날 밤
투사들은 잠을 못 이뤘다
목이 바작바작 탔다
아름다운 고향 산천이 눈앞에 선해
부모 형제, 아내와 자식들의 얼굴
정다운 친구들의 얼굴이 선히 보이고
잠시도 눈을 못 부쳤는데
어느새 날이 훤히 밝는구나

뚜벅 뚜벅 뚜벅
잰 발걸음 소리
앗!
저마다 신경을 곤두세워
집행까지는 꽤 시일이 걸린다던데...
'철컥!'
문 따는 소리
'서도원 나왓!'
수갑찬 팔을 오랏줄로 묶는다
'이놈들 뭔 짓들이냐!'
"동지들! 비겁하지 말자!"
형리는 다급히 입을 틀어막는다
양쪽에 한 사람씩 붙어 팔을 잡고
뒤에는 총든 간수가 노려본다
'민, 민...'
틀어막은 서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 나온다
저벅 저벅 멀어지는 발자욱 소리
'철컥!'
'도예종 나왓!'
'군사독재를 타도하자!'
'철컥'
화재완
'민주주의 승리 만세!'
'철컥'
송상진
'남북통일 만세!'
'철컥'
우홍선
'미군은 물러가라!'
'철컥'
이수병
'망국적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철컥'
김용원
'야만적 긴급조치법을 파기하라!'
'철컥'
여정남
'자유로운 조국 독립 만세!'
애국투사들은
이렇게 형장으로 끌려갔다
아!
목숨은 하늘인데...
목숨은 하늘인데...

외세를 등에 업고
정권을 찬탈한 독재자
나라와 겨레를 끔찍히 사랑한 투사들
의 고문 흔적을 지우려고,
억지로 조작한 죄가 탄로날까봐,
언도 다음날 새벽
전례 없이 부랴부랴 교수형을 집행
가족들의 항의와 애원도 뿌리치고
시신을 화장하는 만행도 서슴치 않았다

오늘도 산천에 가득찬
부모님들의 한숨소리
자식들의 피울음소리
올봄으로 만산의 진달래는 피꽃으로
피어
님의 넋을 아로새겨 준다
세상이 운다 운다
천추의 한을 품고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오랏줄에 묶여 총칼에 내몰린
그 새벽 그 감옥도
지금은 독립공원으로 바뀌어
형장 앞 미류나무 잎새는
23년전 그날의 사연을 곡하듯
살랑살랑 슬픈 곡조로 운다
꽃나이 애국 선열의 목숨을 단칼에 앗
아간
그날의 난폭자도 진작 비명에 갔거니
조국 분단 반백년!
아, 잔인한 세월이여!
그대들의 거룩한 길
우리들 가슴마다에 활활 타올라
중음신으로 떠도는 님들의 명예와 영
광을
민주화와 통일의 길에서, 오늘
반드시 되찾아 드리오리다

끝내는
백두산 높이 대통일의 깃발을 올려
님들의 넋도 빛나는 그 이름
남북 온 겨레와 어울려 덩실덩실 춤추
리니
아, 남북 대통일의 그날이여!

(1998. 11. 5)

인 사 말

죽은 자와 산 자들이 함께 춤추는 날이

문 정 현(신부, 인혁당 대책위 대표)

인혁당! 1975년 4월 9일 이른 아침에 청천 벼락이 떨어졌다.

어제 10시에 대법원 판결이 나고, 저녁에 명동성당에서 대단히 큰 시국 기도회가 있었다. 기도회를 마치고 늦은 밤에 응암동성당 함세웅 신부 사제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꼭두새벽에 가족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사형 집행 소식이다. 소식을 듣고 서울구치소(서대문)로 달려갔다. 전투경찰로 삼엄했다. 가족의 절규는 지금도 생생하다.

그 이후, 우리는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보지 못했다. 말로는 감히 표현할 수가 없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 땅이 꺼지지 않아 지금까지 살아 왔을 뿐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투옥되었던가?

이른바 인혁당 가족을 대면하면 빚을 진 것만 같다. 죄책감마저 든다.

우리가 죽인 것만 같다. 비단 우리만이 아니다. 지금도 당시 안기부 사람에게 "너는 여러 사람을 죽였다. 너는 그들을 살려내라." 찌르는 듯한 질문을 한다. 그러나 당시 안기부 사람들은 당황하며 "법대로 하세요!"라고 힘없는 대답을 하고 도망치기 일쑤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복권이 되지 않았습니까?", "생활하시기 어려우시지요?", "인혁당 사건의 진상과 명예회복 문제는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다. 죽은 이들은 아직도 두 눈을 부릅뜨고 절규하고 있다. 이들의 한이 풀리지 않고는 이 땅의 평화도 없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그 진실에 승복하여 모두가 살아나야 한다. 현대사의 한복판에 있는 인혁당 사건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일이 이제야 시작되나 보다.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인혁당 대책위)가 떴다.

불의한 독재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사형 당한 이들이 나라와 민족의 가슴에 다시 살아나는 때가 이제야 오는가 보다. 강산이 두번 바뀌고 한 세대가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저들의 뼈들이 일어나 춤출 날이 왔다. 죽은 자와 산 자들이 모여 함께 춤출 날을 만들자.

인혁당 대책위 1차 집행위원회(1998. 9. 29)

인혁당 대책위, 앞으로 이렇게 활동합니다.

인혁당 대책위 임원 · 사업 소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 명단

공동대표

이돈명(변호사, 천주교 인권위원회 고문)

문정현(신부, 천주교 전주교구 오룡동성당 주임)

집행위원장

김형태(변호사,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집행위원

김남일(소설가,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총장)

김동원(영화감독, 푸른영상 대표)

김봉우(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김영욱(신부, 천주교 인천교구 주안5동성당 주임)

김찬수(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부의장)

김창남(문화평론가,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과 교수)

김형태(변호사,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도재형(변호사, 천주교 인권위원회 회원)

문국주(민청학련사건 관련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공동대표)

문성근(영화배우)

문정현(신부, 천주교 전주교구 오룡동성당 주임)

박원순(변호사,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무처장)

박충렬(월간 '말' 사장)

송철환(희생자 송상진씨 아들)

신동숙(희생자 도예종씨 부인)

여상화(희생자 여정남씨 질녀)

오창익(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유종순(시인, 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이돈명(변호사, 천주교 인권위원회 고문)
이영우(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정(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
이종걸(변호사, 천주교 인권위원회 회원)
임구호(회생자 서도원씨 사위, 인혁당 관련 구속자)
조성범(남북농업발전과협력을위한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조성우(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인혁당 대책위 사업계획 / 일정

▶ 인혁당 대책위원회 발족식
- 일시 : 1998년 11월 9일(월) 오후 7시
- 장소 :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등 다양한 법률적 대응 모색
▶ 젊은이들에게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인혁당 이야기(가제)' 발간
▶ 88년 공연 연극 '4월 9일' 등 인혁당 사건을 알릴 수 있는 연극 공연
▶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공연 개최
▶ 「인혁당 희생자 8인의 진실(가제)」 영상물 제작
▶ 매년 기일을 맞아 서대문 형무소터에서 추모제(미사, 천도제, 예배) 봉행
▶ 99년 4월 9일 24주기에 맞춰 서대문 형무소터에 추모비 건립 추진
▶ 각계인사들로 광범위한 진상규명 선언운동 전개
▶ 인혁당 희생자 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희생자들을 위한 사업 전개
▶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촉구를 위한 대 정부 교섭 활동
▶ 기타 사업

인혁당 재건위 사건 사형수 여덟명의 진실

1975년 4월 9일. 이날은 국제법학자협회에 의해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된 날이다. 이른바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로 조작된 도예종씨 등 8명이 유신정권의 철저한 조작으로 사법살해된 날이다.

정권연장을 위해 필요했던 희생양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군사정권 18년간의 여러 인권유린 사건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고문 조작사건이다. 굴욕적인 한일회담으로 야기된 6.3사태의 과정에서 정권은 반정부 시위를 잠재우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통해 대구지역인사들을 도예종씨를 당수로 하는 1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발표한다.

그러나 1차 인혁당 사건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통한 조작이 밝혀지고, 아무 증거도 없이 조작된 사건의 기소를 이용훈 부장검사 등 3명의 담당 검사가 거부하면서 이들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게 되는 사법파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법파동 끝에 당시 중정의 대대적인 발표와 달리 도씨 등 몇명만이 인혁당과는 무관한 과거의 사상적 경향을 이유로 실형을 받고 사건은 일단락된다.

10년만에 다시 써 먹은 인혁당 사건

중정의 사건 조작이 실패로 끝난 이 사건이 다시 세인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차 인혁당 사건 발생후 10년이 지난 74년의 일이다.

유신에 항거하기 위한 학생들과 지식인들의 저항이 가열되고 조직화되자 위기를 느낀 정권은 또다시 '조작'의 필요를 절감하게 된다. 정권은 분단 상황에서 국민들이 레드 컴플렉스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며 이철, 유인태 등의 학생들의 시위 움직임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으로 엮어 사형선고까지 내리면서 이들 학생의 배후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내 지하조직이라며 10년전 사건 조작에 실패했던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다시 체포, 대규모 간첩단을 검거했다고 사건을 발표한다.

바로 2차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이다. 이수병씨 등 총 23명이 구속된 이 사건 관련자들은 74년 5월 27일 내란예비 음모 및 내란 선동이라는 어마어마한 혐의로 기소되어 6월 15일 비상 보통 군법회의의 1심 재판을 시작으로 10개월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75년 4월 8일, 이 사건의 주요 관계자 8명에 대해 사형을 확정하였고, 놀랍게도 판결이 난 그날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8명에 대한 사형이 전격적으로 집행된다. 공안관련사범이라해도 사형선고이후 적어도 3,4년은 그 집행을 미루는 관행에 비춰 극히 이례적인 이날의 사형집행은 조작의 전모가 밝혀지길 두려워한 박정희와 중정에 의한 폭거였고, 우리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비극이 되고 말았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혁당 사건은 중정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다. 인혁당이라는 이름도 중정의 작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담당 검사였던 정원찬씨도 증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족의 접견이나 변호인의 제대로 된 조력도 받지 못한 채 정권안보에 혈안이 된 독재집단에 의해 살해되었다.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간첩의 가족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웃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숨죽여 살아온 지 23년이 되었다. 문민정부마저도 희생자들의 억울한 영혼을 달래기 위한 추모비마저 허용하지 않아서, 경북대에 세워진 추모비는 때마다 경찰이 동원한 포클레인의 표적이 되었다.

7,80년대 한국 역사에 있어 광주학살과 더불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 23년이 되었는데도, 가장 초보적인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다. 이는 살아있는 자들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솔직히 고백하자.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하고, 제 2의 건국을 해야 한다는 소리도 새롭다. 그렇지만, 독재정권에 의한 피의 역사, 그리고 20년이 지나도록 이를 올바로 세우지 못했던 우리의 무관심과 냉대를 그냥 두고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조국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혁당 8명의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 고 이 유 서

요식행위조차도 생략된 불법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본　　적 : 경북 대구시 중구 권동 23번지
주　　소 : 경북 대구시 동구 파동 81번지
성　　명 : 여정남
생년월일 : 1944년 5월 7일생
죄　　명 :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상 기 명 : 상고 요지

피고인은 1974년 9월 7일 비상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불복 상고한 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재건합니다.

상고 내용

1. 시종일관 고문, 공갈, 협박으로 강제 조작하여 진술된 재판기록에 의한 엉터리 공소사실과 위법 재판 절차를 그대로 인정 항소 기각 결정을 내린 비상 고등군법회의에서의 2심 재판 역시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전면 무효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본 상고 이유서는 본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서 열거한 사항들도 전부 포함하여 상고이유로써 주장하는 바입니다.

소송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항소 이유로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을 충분히 사료하옵고, 본 상고 이유서에는 항소이유서와 중복되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간단히 상고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2. 재판을 개정하기 전일 변호인 접견시에 알 수 있었던 사실인 봐, 비상군법회

의에 본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열람을 변호인이 요청했던 바, 이유없이 이를 거절당한 경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인권을 옹호할 소송대리인이 항소이유서도 보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항소의 내용조차도 모르고 '꼭두각시 놀음' 격으로 재판에 임해야 했던 난센스는 대한민국에는 법이 존재치 않는 무정부 상태나 같다는 역설적인 표현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본 피고인을 위해 열성껏 변호해 주시던 강신옥 변호사님이 1심 공판 도중 긴급조치 위반죄로 어처구니없이 구속기소되어 10년이란 중형을 받고 상고중에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행한 사태까지 생겼습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루 열거할 수 없을만치 많은 변론 봉쇄 내지 탄압책이 자행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처사만 보아도 비단 변호인뿐만 아니라 1,2심 재판부가 양심에 입각해서 자주적으로 소신껏 재판을 할 수 없었음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무서운 절대 권력의 억압과 명령하에 일방적으로 행해진 형식적인 재판절차와 판결을 전면 무효로 함이 마땅합니다.

3. 비상 보통 군법회의에서 1심 재판이 소위 재판의 형식이나마 갖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면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 옛 속담과 같이 더 이상 부끄러워 재판을 할 수 없었던지 아니면 소위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의 조작사실의 진상이 만천하에 또다시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서인지, 피고인, 변호인 등에게 진술할 일체의 기회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음은 물론 보충신문조차도 허용치 않음은 군법회의에 규정되어 있는 요식행위조차도 생략한 불법행위라고 생각됩니다.

4. 가령 조작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있을 수 없는 불행한 판결을 내릴지라도 원심판결은 형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므로 단연코 파기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기와 같이 본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밝혔사오니 현명하신 판단 아래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본 피고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고인들의 사적인 억울한 사정을 우선하지 않고라도 법의 존엄성을 밝히고 아울러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불법을 철저히 규명하시와 파기 환송의 판결을 내리시어 1심 재판부터 공정한 법 절차에 따라 재판이 새로이 재개될 줄로 기대하오며, 그길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소생시키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1974년 12월 12일

피고인 여정남

위 무임은 본인의 것임을 증명함.

교도부 주한균

대법원 제1부 재판장 귀하

* 그러나 대법원은 이듬해 4월 8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여정남씨 등 8명의 사형을 확정하였다.

유족의 글

잊을 수 없는 4월 9일

송철환(희생자 송상진씨 아들)

1975년 4월 9일.

그날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형도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고 나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하루가 시작되고 거리의 사람들은 언제나처럼 그날을 살고 있었습니다.

간혹은 웃음짓고 간혹은 소리치며 어떤 이는 아이들에게 줄 선물 꾸리미를 들고 또 어떤 이는 선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며 그날은 그 어느 누구에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먹구름이 일고 번개가 치며 억수같은 장대비가 한없이 쏟아지는 그런 날도 아니었고 맑게 갠 하늘에 4월의 황사가 엷게 낀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겐 그날 하루가 잊혀져 지나가 버리는 일상의 하루였지만 나에게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1975년 4월 9일 오후 7시.

하교길, 마침 저녁 뉴스 시간에 '인혁당 사건 관련 8명의 형 집행'이란 보도에 아연실색하여 바삐 집에 들어가서 형에게 뉴스 보도가 사실인지를 물었을 때 집안에는 침통함만이 가득차 있어 더 이상 한마디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 작은 삼촌이 '너거 아버지 이제 오시니까 같이 마중나가자'고 하여 그제서야 내가 "뉴스에 사형 집행했다는 말은 뭡니까?" 물으니 "지금 정부에서 체면도 있고 해서 국민에게는 사형을 집행했다고 해 놓고 비밀리에 석방해 주는 거니 터미널에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무슨 날벼락같은 소린가!

그래! 담당형사도, 중앙정보부원도, 하나같이 '정치적 사건'이니까 시국이 조용해지면 바로 풀려난다고 누누이 밝혀왔는데. 아하! 정치란 이렇게 쇼를 벌이는

것인가 보다.

1975년 4월 9일 오후 10시경.

서대구 고속 터미널에서 저녁 9시가 넘게 기다리다 길이 엇갈렸나 하여 집에 돌아오니 아직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그예 어머니께서 작은 유골 함을 들고 대문을 들어서시며 울음도 크게 울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 공산 초등학교와 대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다 교원 노조 활동을 하셨고, 친구를 사랑하셨고, 산을 좋아하셨던 소탈하시고 모나지 않은 삶을 살아오신 아버지가 작은 유골 함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내가 받아 안고 방을 들어설 때 그 뼈 구르는 소리는 평생을 내 귓가에 떠나지 않고 들려 옵니다.

1975년 4월 9일 이후.

나는 사람이 싫어졌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눈길이 싫었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히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경멸스러웠습니다. 그 기나긴 방황과 불량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었고 헤어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학교를 다니지도 않고 밖으로 나돌아 다녔습니다.

한때는 마음의 평안과 구원을 위하여 천주교 영세도 받았지만 그후 어디에서도 정의구현사제단의 '인혁당은 무죄'라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죄악입니다. 사람을 경멸하는 것만큼 큰 죄악은 없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죄악으로 얼룩졌습니다.

다시 4월 9일.

세칭 '인혁당 사건 관련 여덟명이 사형되고 난 후 장석구 선생이 옥사하셨고 전재권 선생, 조만호 선생, 정만진 선생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조만호 선생께서는 석방후 정신 이상과 거식증으로 음식에 독약을 탈것을 두려워하여 굶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만진 선생께서는 인혁당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신정권의 실체를 밝히시려다 심장마비로 운명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돌아가셔

서 비로소 그분들의 사랑을 만나실 것입니다. 다시 만나 술 한잔 기울이며 예전처럼 너털웃음을 웃고 계실 것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를 듣고 기분 좋아 못 마시던 술을 마시고 아이들을 깨워 춤을 추셨다던 하재완 선생님, 우리 남매를 너무나 칭찬하셨던 도예종 선생님, 언제뵈도 호인이셨던 가슴 너른 서도원 선생님, 김용원 선생님, 여정남 선생님, 아버지의 유언으로 합장해 달라고 하신 사도로서 존경하는 이수병 선생님.

1998년 4월 어느 날.

인혁당 진상규명 활동을 하기 위해 상근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데 한사람도 나서지 않는다는 함종호(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상임의장)선배의 말을 듣고 그날 영천에 사시는 인혁당 관련자 이재형 선생을 만났습니다. 세월보다 더 깊게 패인 주름살을 보며, "당당하게 살아야 해"라고 한없이 되뇌시던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아직도 인혁당은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이 유신 헌법의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하는 이용물이었음을 알고 "더이상 민주주의도, 선거도 없는 총통제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분하시고, "더이상 박정권과는 타협도 기대도 하지 않겠다"고 중학교 다니던 나에게까지 궐기할 것을 요구하시던 아버지는, 그러나 작고 여린 가슴의 인간이었습니다.

이제 기필코 인혁당 사건의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인혁당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나의 비겁함과 나의 무기력, 나의 분노와 나의 배타적 경멸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과 사랑과 포용을 약속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역사와 진실이 가벼이 왜곡될 수 없는 것임을, 그리하여 역사앞에 진실앞에 두려움과 겸허함으로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슬픔과 분노가 그대로 슬픔이나 분노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교훈과 반성과 다시금 일어나는 희망으로 될 때 그 슬픔과 분노는 되뇌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히 산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 있어라!

여상화(희생자 여정남씨 질녀)

사람들은 묻는다.

"삼촌하고 참 가까웠나 보죠?" "...아, 예, 제가 큰 형님의 딸이니까, 제가 여자 중에서는 제일 크니까..."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하다가 나는 중간에서 그 분이 왜 그 얘기를 하는지 문득 깨닫고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진다.

그 이름대로 살다간 나의 삼촌 여정남

나의 삼촌 여정남. 바른 남자. 그 이름대로 살다 가셨다. 사시는 동안 내내 횡단보도의 파란 신호등을 보고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미친 듯이 달려들던 중앙정보부라는 차에 치어 돌아가셨다. 아내도 없이, 자식도 없이, 쓸쓸한 느낌. 내가 삼촌을 챙기는 건 당연하다. 나는 삼촌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겐 참 아픔으로 남아 있다. 내가 어렸기 때문에 삼촌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해 드리지 못했던 것. 하기사 알았다해도 어차피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을 텐데 하는 것으로 그나마 나 자신을 위로 해 보는 수밖에.

살아가다 가금씩 비집고 들어오는 삼촌에 대한 그리움들. 아니 애절함들이다. 키가 참 커다랗고 인자한 분이셨다. 어릴 때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나는 할머니 옆에서 자지 않고 삼촌옆에서 잤다. 마루에서 커다란 모기장을 치고...잠이 들면.

아침에 잠에서 깨면 삼촌은 마당을 쓸고 계셨다. 그리고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어린 마음에도 삼촌은 참 인내심이 있었다. 생각나는 것. 어느 날 삼촌이 식사를 하시는데 할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다.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는데 할머니의 그날 잔소리는 삼촌이 밥상을 물릴 때까지 계속되었다.

어린 마음에도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삼촌 소화 안 되겠다. 제발 할머니가 그만 했으면' 하는 생각에 원망스런 눈으로 할머니와 삼촌을 번갈아 쳐다보며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삼촌은 '어무이 이제 그만 하시이소.' 소리도 않고 그냥 '예,예' 하며 끝까지 밥을 다 드시고 수저를 놓으셨다.

또 하나. 어릴 때 엄마를 따라 재판정에 갔다가 엄마가 "삼촌 불러 봐." 하시고 "아지야" 부르면 뒤돌아보고 '씩' 웃어 주신다. 나는 아무 것도 모르고 웃는 삼촌의 모습이 그저 좋았다. 환한 삼촌 얼굴이.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시험을 치기 전날. 우리 집에 오셨댔다.

"시험 잘치고 건강하그래이. 그리고 이걸로 엿 사묵어라. 내가 못 사왔다 아이가..." 하시며 돈을 주셨다.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시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였을 텐데 아무 것도 모르는 나는 오랜만에 본 삼촌 때문에 반갑고 좋기만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나와의 마지막이었다. 우리 가족과의 마지막이었다.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죽음을 선고받은 삼촌

그리고 얼마 후에 나는 이제 신문에서 삼촌을 보게 되었다. 삼촌은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죽음'을 선고받고 있었다. '설마 죽이기야 하려고. 저들도 우리들보고 정치적인 문제니까 쬐끔만 참아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변호사도 그랬고, 중정사람들도 데모만 진압되고 사회가 조용해지면 남편들 돌아옵니다. 그때 맛있는 거 많이 해서 남편들 대접이나 잘 하소 했는데, 안심하라고 했는데...'

다른 모든 가족들이 그랬듯이 우리 가족도 아무도 삼촌이 죽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도 빨리. 착하기만 한 삼촌이 아무리 데모를 많이 했다해도 설마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기야 하려고… 하지만 삼촌은 죽어서 돌아 왔다. 이제 모든 게 끝이었다. 독재자가 각본도 없이 마음대로 극을 연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인공들을 없애버린 것이다. 더구나 한꺼번에 여덟 명을 무 자르듯. 아주 예민한 사람들조차 미처 그 복선을 알아채지도 못했는데.

삼촌의 죽음이 나에게는 사회적 의미고 윤리적 의미고 역사적 의미고 상관없이 그저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이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 오빠와 나를 앉혀 놓고 삼촌의 죽음을 너무나 담담하게 알려주시던 아버님을 생각하면. 그때 오빠와 나는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였다. 나는 그 길로 교회에 달려갔다.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나는 무지하게 울었다. 그때는 슬프다는 느낌보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집에 남은 오빠는 어땠을까? 오빠는 욕해 될 하느님도 없었는데…'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내가 죽기 전에 정남이의 누명을 벗겨야 하는데 불쌍한 놈... 부탁한다... 힘들겠지만 미안하구나.' 말씀하시던 눈빛.

나는 삼촌의 죽음으로, 아니 같이 돌아가신 여덟 분의 죽음으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고뇌했다. 그 고통은 오래 갔다.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장면, 어떤 책에서든 무시로 튀어나와 나를 흔들었다. 김근태 선생님의 '남영동에서'를 읽으면서도 그랬고 얼마전 텔레비전의 드라마 '최수종 교수형 장면'에서도 그 분들의 죽음이 겹쳐졌다. 사람은 하늘이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삼촌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의 부인들과 자식들을 생각하면 난 입이 열개라도 그 입을 닫아야 할게다.

빨갱이 자식이라고 나무에 묶어 놓고

1974년 4월 18일 연행된 이수병선생님의 부인은 어린 딸애를 들쳐업고 다음날부터 매일 아침 교도소 앞을 서성였다. 하재완선생님 댁, 동네할머니가 빨리 나가보라고 전화를 해서 나갔더니 당시 7살 어린아이에 불과하던 아들을 동네 꼬마들이 끌어내어 목에 새끼줄을 매어 나무에 묶어 놓고 빨갱이 자식이니 총살한다고 하면서 놀이를 하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러한 장면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저 쳐다보고 웃고 있었다. 팔짱끼고, "그당시 경찰관들도 그꼴 다 봤어요. 그걸 본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초등학교 2학년이던 큰아들은 소풍을 가서 점심을 먹는데 애들이 너희 아버지 간첩이지 하며 도시락에 개미를 넣어서 애가 못먹고 피해다니고 울면서 집에 왔어요."

그뿐이 아니다. 남편들의 억울함과 무죄를 확신하고 이 사건이 박정권에 의한 조작극이라는 사실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애쓰던 부인들은 간첩의 가족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구속자가족협의회에서 벌이던 기독교회관 농성에서조차 참여 할 수 없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남편의 석방을 눈물로 호소하며 백방으로 뛰어다니던 부인들은 거의 전부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되어, 육체적 정신적 폭행을 당했으며 심지어는 약물을 먹여 성적 흥분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며 회희낙락하는 등 정보부가 벌인 만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부인들은 '다시는 구명운동을 안하겠다.' '신·구교에서 개최하는 기

도회에 나가지 않겠다.' 혹은 '내 남편은 간첩이다'라는 진술서를 쓰고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 부인들은 정보부의 강압에 의해 자신들이 쓴 진술서가 남편의 신상에 영향을 줄 것에 가책을 느껴 사제단에 양심선언을 써서 맡겨 놓기도 했다.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꼴인가

김용원 선생님 부인은 당시 32세의 젊은분이셨다. 큰애가 5세, 작은애는 2, 3세였는데 몇날 며칠을 버티다가 아이들이 밥 달라고, 젖 달라고 우는 소리가 귀에 쟁쟁해서 써 주고 나왔는데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꼴인가'며 실망감, 좌절감, 남편에 대한 죄책감으로 쥐약을 사놓고 일가족 자살을 기도하였다. 때마침 찾아온 친정 어머니에 의해 가까스로 죽음은 피할 수 있었지만 '내가 아무래도 너보다 먼저 죽어야 할까 보다'라고 말하며 눈물짓던 어머니는 그때의 충격으로 한달 후에 돌아가셨다.

이외에도 가족들이 겪은 고통들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 하지만 붙들려 간 도예종 선생님이 고문에 의해 협심증에 걸려 수 차례 졸도 하는 등 만신창이가 되어, 중정에서 고맙게도 약까지 사먹였대도, 하재완 선생님이 혹독한 고문으로 탈장이 되고 항문이 빠지고 귀가 먹었대도.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법정에서 문호식 검사가 '덜 맞아서 그 따위 소리를 하지, 나중에 더 때려 주지.' 소리치는 것을 들었어도, 영치금 넣고 찾은 이만큼 끊긴 내복과 피묻은 속옷바지, 그것도 물 한 번 끼얹은 속옷바지를 봤어도, 재판 때도 피고들이 한 마디라도 거슬리는 소리를 하면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혀가 나오도록 맞았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육군 대위 출신의 건강한 우홍선 선생님이 구속 4일만에 상처로 인하여 하지를 쓸 수 없어 누워도 좋다는 '와허증'을 받았대도.

'설마 죽이랴' 생각했지만

'힘들어도 힘들어도 이것으로 끝이겠지' 견디며 버텼다. 모두들 그랬다. 가족들도 신부님들도 이 미친 바람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랬다.

"참말 가족들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껏 얼굴 한 번, 얘기 한번 제대로 못 나눠 봤습니다."

하지만 "사형!" 4월 8일 대법원확정판결. 그래도 모두들 '설마 죽이랴' 했다. "저들도 정치적 문제니까 ... 별일 없을 거라 했으니까..."

"재판 과정에서 싱긋이 웃는 모습이 너무 평화롭고 멋지게 웃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면서 웃는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서 걱정도 안했다." 그리고 부인들은 성당에 모여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주고 있었다.

"기다렸어요, 잘 들 오셨어요.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대법원 원심이 확정됐으니 어쩌면 면회가 허용될 지도 몰라요. 전 남편 면회 한번만 해도 원이 없겠어요. 그 동안 소식 한번 듣지도 못했고 재판정에서 겨우 뒷모습만 보다니."

"또 그러시네요. 교도관들도 그랬잖아요. 울부짖지만 말고 빨리 탄원서를 쓰라구요. 그리고 재심을 신청해야지요. 민청학련 학생들도 다 풀려났는데 우리 남편들이라고 이대로 사형을 당하겠어요. 자 신부님 만나 뵙고 대책을 세우도록 해요. 힘들 냅시다."

그리고 그날 밤 가족들은 기도하듯 탄원서를 써 내려갔다.

"우리들은 살고 싶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부디 남편을 정치 제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눈물과 통곡, 비탄의 바다

그날 밤 김용원 선생님은 - 평소에 선생님은 자기 물을 잡범들에게 양보하고, 잡범들은 칭찬. 조용하고.., 인자하고 - 대법원 판결 났던 그날 신변 정리를 하시면서 소지품과 책을 집에 보낼 것, 안에 있는 사람 줄 것으로 정리하시고. '물은 오늘 대신 내가 써야겠다' 하시고 한 말 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몸 닦고 내의 갈아입어, 설마 선생님 같은 분을 죽일까요? 마음 편히 잘 주무십시오' 다음날 기상시간 6시. 그날 따라 조용했다. 7시가 돼도 밥 줄 생각도 않고. 9시가 다 되어 인기척. "새벽에 처형했다." 나가시면서 유인태씨 방을 거쳐 나가시는데 발자국 소리가 나면 유인태씨가 잠이 깰까봐 일부러 창문 쪽으로 바짝 붙어서 걸어나가셨다.

'잠든 사람, 잠이 깰까봐....'

1975년 4월 9일 새벽, 사형장으로 향하는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23년이 지난 오늘 새벽. 다시 천둥 번개 소리보다 더 크게 마음을 친다. 그리고 찢어 놓는다.

"여보세요." "고모 글쎄 오늘 아침 뉴스에…"

1975년 4월 9일 아침, 서대문 구치소 앞의 조그마한 공간은 그야말로 눈물과

통곡, 그리고 비탄의 바다였다. 대법원판결이 내린 바로 다음날 새벽 4시부터 같은 사건의 관계자 8명이 잇따라 처형된 경우는 아마도 그 유례가 없을 것이다. 느닷없는 사형집행 소식을 듣고 시체라도 찾기 위해 몰려온 가족들은 모두들 넋이 빠진 사람들처럼 몸부림치며 통곡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느님 아버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 어떻게 여덟 생명 앗아갈 수 있나. 뉴스 듣고, 여덟 사람 소식 듣고, 가족들 꿈이길 바라, 정말 꿈이길 바랬으나 두 눈으로 보고 정말인 줄 알았다."

"신부님들 안죽을 거라 하더니 이렇게 죽었지 않아요? 안 죽는다더니만 이렇게 죽었지 않아요?" 하고 신부님들의 옷깃을 부여잡고 울부짖었다.

그리고 유언 조작. 포크레인까지 동원된 시체인수 과정의 그 희비극적인 작태들. 소위 인혁당 신부라고 불리시던 문정현 신부님은 시체를 뺏기지 않으려고 "차라리 나를 깔고 가라"시며 길바닥에 드러누우시고. 영구차는 경찰차의 호위(?)아래 강제로 화장터로 향하고. 겨우 빼앗아 온 시신에는 끔찍한 고문 흔적, 흔적들. 그러나 세상은 다시 잠잠해졌다. 가끔 시도는 있었을 뿐.

그러나 세상은 다시 잠잠해졌다

그후 많은 사람들이 그 듣기에도 어마어마한 죄명들에 묶여 감옥에 끌려가고, 또 풀려나고 사면되고 복권되고 마치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것 같은 법의 유희를, 변화무쌍한 이 세태를 우리 유족들은 가슴 아파하며 또 너무 부러워서 피눈물에 얼룩진 가슴으로 바라보며 살아왔다.

'평소에 아는 사람 스무명만 대라 해서 고문에 의해 횡설수설해서 피해 당한 사람 생각하면 괴로워서 잠도 안온다.' 하재완 선생님.

'중정에서 누군가는 한사람을 희생시킬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될 것 같다. 중정에서는 도예종씨를 수괴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아무 것도 안한걸 내가 아는데, 내가 수괴로 되는 게 인간적 도리가 아닌가 싶다.' 서도원 선생님.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여덟 명이었다. '미안합니다. 아무 것도 한 것 없이 배후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학생운동 망쳐먹는 일에 동원이 돼서' 이수병 선생님.

나는 돌아가신 여덟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누를 수 없다. 책 속에서, 가족들 속에서, 아는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만난 그 분들은 모두 여

리고 맑고 깨끗한 품성을 가지셨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신 분들이셨다.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해 누구보다도 애쓰며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셨다.

죽인다고 주위에서 시끄럽게 떠들 사회적 관계가 그리 없었기에

이제 나는 감히 세칭 인혁당 사건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박정희 정권이 유신정변을 일으킨 후 유신체제에 대한 극렬한 저항이 폭발하자 긴급조치만으로는 모자란다는 판단하에, 마음먹고 인혁당이라는 사건을 고문으로 조작, 유신반대투쟁의 예봉을 꺾으려는 정치적 음모에 희생된 사람들. 또 그것이 재판과 요식절차를 거쳐 독재권력이 어느 만큼 잔악무도한지를 세계 만방에 극렬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들을 죽인다고 해서 주위에서 시끄럽게 떠들 사회적 관계가 그리 없다는 것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유의 전부였다. 나는 적어도 오늘에 이르러 그 분들 모두의 복권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머지 않아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으리라는 가족들의 믿음 위에서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지난날에 있었던 억울한 사건의 주인공으로 이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으로 그 시대를 살아남은 우리들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권력의 힘에 의하여 묻혀지고, 역사 속에서 철저히 외면되고 가리어진 이 사건을 이제 밝은 빛 속으로 드러내는 일만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다.

"그 날 버드나무 하얀 가루가 많이 날리던 날이었다. 내 그 날 기억해요. 내가 사형장 가까이 있는 사방에 있었거든요, 참혹하지요."

"돌아 오라 그대들. 온몸에 두껍게 칠해진 붉은 물, 부르르 털고 다시 살아 영원히 산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 있어라!

탄원서 1

세칭) 인혁당사건 관계자들을 사면, 복권, 보상하십시오.

(이 자료는 인혁당 희생자 8명중 한분인 우홍선씨의 부인 강순희여사가 6월항쟁 직후인 1987년 8월 각 정당대표 앞으로 보낸 탄원서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남편들은 가족들 얼굴 한 번 못보고 천추의 한을 남기고 아침 이슬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그후 많은 사람들이 그 듣기도 어마어마한 죄명들에 묶여 감옥에 끌려가고 또 풀려나고 사면되고 복권되고 마치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것 같은 법의 유희를, 변화무쌍한 이 세태를, 우리 유족들은 수없이 거듭 찢긴 가슴을 아파하면서 너무 두려워서 피눈물에 얼룩진 가슴으로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6. 29선언 이후 또 많은 2,335명이란 수치의 내란 음모에서부터 별의별 사건의 주인공들이 사면 복권되는 이 마당에서도 유독 우리들(세칭 인민혁명당), 온 천하가 모자라면 전세계가 다 알고 있는 이 억울하게 희생된,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희생된 정치적 재물임을, 더욱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면 여야를 막론하고 더 잘 알고 있을 이 사건을 사면, 복권, 보상에서 제외하고 어떻게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할 수 있으며 무슨 민주화를 실현한다고 할 수 있으며 민주화가 실현될 가망이라도 있겠습니까? 1977년 당시 통일당에서 발간한 '민족의 행진'이란 책자에 실린, 그 당시 탄압받고 있는 양심수들 명단에서 인혁당 사건에 묶인 인사중에서도 유독 죽은 분들 8명의 명단이 누락되어 있어 양일동 당수(지금은 고인)에게 "당신이 무슨 권리로 역사를 왜곡해서 기록했느냐"고 울부짖으며 항의했을 때 잊어버리고 누락되었다고 미안하다고 한 웃지 못할 웃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 사면, 복권, 보상에서도 잊어버리고 누락된 것은 아닌지요?

복권, 사면, 보상을 결정짓는 여러 형태의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칭 인혁당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정말 몰라서 이러는 것인지요?

박정희가 자신의 실책중에서 가장 큰 실책이 8명을 사형시킨 일이라고 후회했다는 이야기를 前 윤보선 대통령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의 현정권이 유신정권의 연장이 분명 아니고 진정 민주화를 향한 참신한 정권으로 변신을 하였다면 우리를 즉각 사면, 복권, 보상하십시오. 만약 우리를 사면, 복권, 보상할 수 없다면 유신정권과 같음을 시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법의 평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더 죽여 가족들의 아픈 가슴에 못을 박지 마십시오. 저는 남편이 사형당한 이후 신문에 나온 박정희 사진을 그가 죽을 때까지 약 5년간 이가 아프도록 꼭꼭 씹어서 뱉곤 하였습니다.

남편 산소에 매주 꽃을 들고 찾아가서 푸른 하늘을 향해 '살인마 박정희 천벌을 받아라'하고 외쳤습니다. 한번 외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꼭 세번씩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무심치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머리가 하나도 남아나지 않고 죽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주하며 신문에 난 머리를 꼭꼭 씹었기 때문이라고 꼭 믿고 싶습니다. 박정희가 죽기 전에는 세상이 사람사는 세상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당했다 해도 내가 누명을 벗길 수 없어 죽었다면 억울해도 모든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나 남편의 무죄를 다 밝히고 조작한 정보 당국에서도 할 말이 없었는데 사람은 죽여 버리다니. 이게 어디 법치국가며 사람사는 세상이랴!

그래서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사에게 인혁당이 조작임을 폭로하면서 "나를 못 믿겠으면 파출소나 경찰서로 나를 고발하시오.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한 이 말을 당신 아닌 10명에게 이야기하고 그들 10명보고 또 다른 사람 각각 10명에게 이야기하자"고 울부짖으며 거리를 누볐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나를 경찰서나 파출소앞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집앞까지 위로하여 태워다 주었습니다.

이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박정희가 죽은 후에는 이젠 "내 원수는 하느님이 갚아 주셨다"하고 억지로 생각하고 매주 산소에 가서 울부짖던 일도 그만두고 언젠가는 민주화가 되면 내 억울하게 죽은 남편도 사면, 복권, 보상을 떳떳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온 천하가 민주화 물결이고 죄없는 양민을 8명이나 재심 청구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이웃나라들에게 야만인이라는 평을 들어가며 새벽에 학살한 원흉 박정희도 제명에 못 죽고 자기가 가장 아끼던 부하에게 죽고 없는 이 마당에서도 온 천하가 다 아는 조작된 인혁당 사건을 모른 채 외면한다면 이는 거짓 민주화, 그리고 유신 정권의 연장임을 인정한 소치임을 명심하십시오.

결코 유신정권의 연장이 아니고 민주화를 선언하고 외치는 정권 내지 정당들이라면 하루 속히 세칭 인혁당 사건 관계 인사들을 사면, 복권, 보상하십시오.

1987년 8월

세칭 인혁당 사건으로 희생된 우홍선의 처 강순희

탄원서 2

억울한 죽음의 진상은 밝혀져야 합니다.

(이 자료는 50년만의 정권교체 직후인 1998년 8월 유가족이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인권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제출한 탄원서입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의 폭압이 절정에 달했던 1975년 4월 9일.

"사형"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 15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새벽 5시.

고문과 협박, 공판기록 변조로 얼룩진 - 당시 유신헌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긴급조치 1, 4호 및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청학련 국가변란 주도사건(사건 번호 : 74 비보군, 형공 제14호, 15호, 16호, 17호, 18호)에 연루된 - 소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관련된 여덟명이 사법 살인을 당했습니다.

공포와 폭력의 시대에, 이성을 잃은 잔인 무도한 독재의 칼날이, 독재 저항 세력을 잠재우기 위한 제물로서 몇 사람의 목숨을 요구할 지도 모른다는 일부 우국인사들의 암울하고도 불길한 예감 그대로, 우리들이 밤새 뒤척이다가 잠시 잠든 새벽, 소리없이 그들은 살해되었습니다.

재심이나 탄원을 시도해 볼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끌려가 가족들이, 경찰에 의해 화장터로 호송되던 고문으로 얼룩진 시체를 탈취해 와야만 했던 그 순간까지, 결코 단 한번의 면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황사 바람 불던 4월의 새벽, 그리고 23년을 이 세상에 떠다니며 그들의 원혼을 그나마 달래주던 소위 인혁당에 관한 수많은 책 속의 글들과 사진들. 인혁당 사건의 조작, 날조를 폭로하여 또 다시 감옥에 갇혀야 했던 거침없이 의로웠던 사람들.

'아무개가 죽어서 슬프다'며 울었다고 잡아가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 기사나 글들이 한 번도 수구 세력에 의해서도 저항받지 않았던 걸 보면 인혁당의 조작은 절대 절명한 진실이라고 더욱 더 굳게 믿게 됩니다.

'인내는 폭력보다, 또 어떤 저항보다 강하다'

끝없는 이 되새김은 힘없는 우리들이 우리보다 힘있고 기댈 수 있는 분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절박한 희망으로 기대하면서 통곡과 피로 새겨진 가슴을 끌어안으며, 23년을 살아온 우리들을 스스로가 위로해 주는 비겁하지만 어쩔 수 없는 절박한 화두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제물로 희생된 남편들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의 진실을 기필코 밝혀내고야 말리라는 일념으로 23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며 버티며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들 가족들이 당해야 했던 수모와 피맺힌 원한과 애통함을 어찌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항상 그랬습니다. 민주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가슴속 분노는 너무나 깊어져서, 이제 통한의 삶을 지탱해 주던 화두도 버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나이가 들고 이제는 인내할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느

끼게 됩니다. 남편들을 그렇게 보내고 평생을, 누명을 벗겨 주리라는 약속을 굳게 새기고 살았는데 그냥 그대로인 채 이 목숨마저 다하고 나면, 어찌 하늘에 올라 남편들의 얼굴을 도대체 무슨 염치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당해 본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덟명의 죽임, 그리고 또 한 분의 옥사.

9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억울한 옥살이의 잔인한 휴우증으로 비명에 요절하신 분들, 이 모든 희생들은 저희 당사자들과 개인들만의 억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 법의 힘을 교묘히 악용하여 극대화된 권력의 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순식간에 여덟 분의 목숨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심증으로는 조작된 소위 인혁당 사건의 진실 규명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결코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가'의 상징적인 표적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의의 바탕위에서 서는 만큼 정의를 실천한 자만이 정의를 부르짖을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50년만의 정권 교체로 세워진 국민의 정부의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니다. 재심을 통하여, 고문에 의한 수사끝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희생되신 여덟 분과 인혁당 관련 인사들의 명예를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정치의 최상 목적은 선을 행하기는 쉽고 악을 행하기는 어려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일을 밝혀 주셔서 선이 악을 이기는 이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거듭 믿고 소원합니다.

1998년 8월

인혁당 유가족 대표 고 도예종의 처 신동숙

고 하재완의 처 이영교

인혁당 관련자 대표 전창일